



LG 정성훈은 이달 들어 치른 16경기에서 타율 0.350, 8타점, 출루율 0.500, 장타율 0.600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몸무게가 10kg 이상 줄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시즌 초반의 부진은 온데간데없다. 스포츠동아DB

불방망이로 ‘수비 스트레스’ 왕!

베이스볼 피플 LG 정성훈

6월 타율 0.350...9연속 ‘위닝’ 주도
시즌 3·4호 홈런도 폭발 “감 잡았어”
스트레스로 체중 10kg 이상 줄기도
“동료들 덕에 부담덜고 페이스 찾았다”

LG 정성훈(33)은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자 힘을 내고 있다. 정성훈은 6월 들어 치른 16경기에서 타율 0.350, 8타점, 출루율 0.500, 장타율 0.600으로 올 시즌 들어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23일 대구 삼성전에선 2점홈런을 때려내는 등 홈런포도 2차례 가동하며 5월까지 식었던 방망이에 불을 붙이고 있다.

오른손 거포가 부족한 LG에 간판 오른손타자인 정성훈은 지난해 시즌 종료 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어 4년간 총액 34억원에 LG와 재계약했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새 시즌을 맞았지만, 그는 스프링캠프에서부터 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정성훈은 스프링캠프 때 갈비뼈 부상을 입어

훈련량이 부족한 채로 시즌 개막을 맞았다. 타격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수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잠실구장 내야는 흙을 교체한 뒤로 타구가 이전보다 빨라졌다. ‘핫코너’를 담당하는 정성훈은 그라운드 적응력이 떨어져 수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10kg 이상 줄었고, 나쁘지 않았던 타격 페이스도 뚝 떨어졌다. 이런 정성훈의 모습을 보면서 LG 감기태 감독은 “몸이 운동선수가 아니라 일반인처럼 바뀌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LG는 5월말 방전에서 성공했지만, 정성훈은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컨디션 난조로 5월 31일~6월 2일 열린 KIA와의 광주 3연전 때는 선발라인업에서 제외돼 대타로만 출전했다. 김 감독이 정성훈에게 지친 심신을 달랠 기회를 준 것이다. 타순도 조정해 심적 부담을 줄여줬다. 권용관, 손주인, 김용의 등이 돌아가며 3루수를 봤다. 정성훈은 “내가 좋지 않을 때 다른 선수들이 잘해줘 마음을 편하게 먹고 몸을 추스를 수 있었다. 그 덕에 조금씩 제 페이스를 찾았다”고 밝혔다.

잠시 숨을 고른 정성훈은 이후 6경기에서 연속안타를 뽑아내며 제자리로 돌아왔다. 수비에서도 이전과 달리 말끔한 플레이로 주전 3루수다운 모습을 보였다. 정성훈은 “선수들이 돌아

가면서 뛰다보니 체력을 세이브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몸무게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등 점차 나아졌다. 수비에 대한 부담도 한층 덜었다”고 털어놓았다.

정성훈은 19일 마산 NC전에서 시즌 3호 홈런을 때려냈다. 5월 21일 대구 삼성전 이후 거의 한달 만에 짜릿한 손맛을 봤다. 그 홈런은 정성훈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는 “밀어 쳐서 오른쪽 담장을 넘겼는데, 그동안 훈련했던 것이 효과를 봤다. 타격하면서 잊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경기 전에 훈련한대로 홈런이 나와 점점 더 나아질 것으로 믿었다”며 웃었다. 타격 매커니즘이 어느 정도 몸에 익었는지, 그는 4일 만인 23일 삼성전에서 다시 한 차례 홈런포를 가동했다.

LG가 9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긴 했지만, 매 경기 좋았던 것은 아니다. 6월 중순부터 팀의 타격 페이스는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했다. 경기수가 워낙 많아 선수들이 조금씩 지쳐갔다. 그런 상황에서 정성훈이 중심타자다운 활약을 펼쳐준 덕분에 LG는 계속 승수를 쌓을 수 있었다. 핵심 멤버들 가운데 제일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시점에 터졌다. 4일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온 정성훈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 @gtyong11

롯데 성공적 세대교체에 가려진 ‘베테랑 처우’

베이스볼 프리즘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 모양새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불행의 이유가 다르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다. 진화생물학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총균 쇠’라는 저서에서 이 문장을 ‘안나 카레니나 법칙’으로 인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야구단에도 ‘안나 카레니나 법칙’은 어김없이 적용되는데, 잘 나가는 구단이 왜 잘하는지는 딱 떨어지는 설명이 힘들어도, 못 나가는 구단이 왜 못하는지는 이유를 주렁주렁 딸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롯데는 참 설명하기 곤혹스런 케이스다. 롯데는 24일까지 33승2무27패를 기록 중이다. 5위지만 1위 삼성과는 불과 3.5경기차다. 5년 연속 4강에 올랐던 관록을 지녔다 하더라도, 지난 겨울 롯데는 2명의 프리에이전트(FA) 김주찬(KIA)과 홍성흔(두산)을 잃었다. 그에 앞서 이대호(오릭스)가 일본으로 갔고, 좌완 에이스 장원준은 경찰청에 입대했다. 우완 에이스 조정훈도 공익근무요원을 거쳐 길고 긴 재활에 매달리느라 전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개막

직후에는 마무리 정대현까지 극도의 구위 난조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전력으로 롯데가 저비용고효율의 성적을 내고 있는 현실을 결과론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성공적 세대교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야수진의 실질적 리더가 강민호, 손아섭, 전준우, 황재균 등 ‘1985년 이후 세대’로 재편됐다. 이 선수들이 팀의 중심으로 성장했고, 풀플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롯데 안팎에선 장원준이 군에서 제대하고, 조정훈이 재활을 끝내는 2014년을 우승의 최적기로 보고 있다. 다가올 스토브리그에서 FA 강민호를 잡아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야구계에선 “롯데가 올 겨울 강민호의 잔류에 만족하지 않고, 외부 FA까지 데려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정훈, 신봉기의 성장과 이승화의 재발견 등은 롯데의 2014시즌을 위한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좋은 재료다. 김시진 감독과 코칭스태프도 2013년 4강에 근접한 성적으로 명분을 세우고 건설한 세대교체를 이룬 뒤, 2014시즌 우승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그

림이다.

그러나 잘 버티고 있는 지금의 롯데, 우승을 노려볼 만한 내년의 롯데가 어찌면 소홀히 여기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 바로 베테랑의 처우다. 올 시즌 들어 조성환, 박준서, 이용훈, 김사울 등 롯데 터줏대감들의 입지가 애매모호해졌다. 주전에서 내려왔거나 몸이 완벽하지 못한 형편들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한물간 ‘잊혀진 선수’처럼 취급될 존재는 아닐 터다. 롯데의 명운이 엇갈릴 승부처에서 베테랑들의 존재감은 더욱 빛날 것이다. 대타로서 제몫을 다해주면서 덕아웃에서 가장 먼저 후배들을 응원하는 박준서의 가치가 대표적이다. 영원한 캡틴 조성환과 롯데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 20세이브를 작성한 김사울, 퍼펙트맨 이용훈 등은 단순히 경기력을 떠나 롯데의 정신적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이름들이다. 베테랑들이 앞장서서 기적을 쓰고 있는 LG는 롯데에 좋은 참고자료일 것이다. 그리고 현상이 미처 다 채지 못하는 베테랑의 예우는 프런트의 몫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오승환에 사인 부탁한 안지만 “누가 야구 잘 하세요?”

“형, 사인 좀 해주세요.”

23일 대구구장 3루 덕아웃 옆. 삼성 안지만(30)은 LG 선수들의 훈련을 바라보고 있던 오승환(31)의 곁으로 슬며시 다가갔다. 그리고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손에는 프로야구 공인구 한 박스와 매직펜이 들려있었다. 한 박스에는 공인구 12개가 들어간 다.

선수가 선수에게 사인을 받는다? 팬들로서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선수들 사이에선 이런 일이 종종 있다. 대부분 지인의 부탁으로 사인볼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안지만의 사인 요청에 오승환은 “또 사인? 너까지 왜 그래?”라며 집짓 눈을 부라렸다. 오승환은 최고 스타플레이어답게 여기저기 사인을 해야 할 일이 많다. 팬들은 물론 동료선수들까지 사인을 요청하니, 어떤 날은 하루에 수백 번씩 사인을 하기도 한다. 솔직히 귀찮을 때도 많지만, 아는 낮에 거절도 할 수 없는 노릇. 그런데 절친한 후배 안지만이 공 한 박스를 들고 나타나자 한마디 쏘아붙인(?) 것이었다. 그러나 ‘4차원의 영혼’을 지닌 안지만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



삼성 오승환(오른쪽)이 팀 후배 안지만의 사인 요청을 받고 공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대구 | 이재국 기자

다. 그의 역공에 오승환은 본전도 찾지 못했다.

“사인하기 싫으면 야구 못하면 되잖아요. 누가 야구 잘 하세요?” 할말을 잃은 오승환은 모처럼 ‘파안대소’했다. 그리고는 ‘졌다’는 표정으로 공에다 사인을 하기 시작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제 조 원
(주) 장수구들 의 대표 브랜드

명품 브랜드 거북이표 전제품은 **소가죽** **보료**만을 사용합니다

www.jodshop.co.kr

거북이표장수 건강침대

고객사은행사
▶ 전품목 전국 무료배송 실시
일부모델은 초기소산 예상되나 빨리 선택하십시오.

JM506(핑크백)
퀵 3,900,000원
size 2300x1950x1100

JM304(핑크백)
퀵 1,800,000원
size 2470x1780x900

JM1008(핑크백)
퀵 1,500,000원
size 2240x1740x920

JM6002(핑크백)
싱글 2,300,000원
size 2580x2580x900

JM52075(핑크백)
싱글 1,700,000원
size 2240x2240x740

싱글 1,600,000원
size 2250x1170x890

싱글 1,300,000원
size 2200x1170x910

튼튼이나 대패가 아닌 100%
편백큐브만을 사용했습니다.

거북이표편백배개
대 102,000원 (무료배송)

2012한국소비자선호지수1위
Korea Preference Consumer Index 2012 1st

제품문의 : 02)3402-2523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대리점모집 02)3402-2520

친차과 가격 끝!!
평생 A/S보장
압축을 증가
전면 50% 이상 감소

고객 만족, 가격 만족 ▶ 2Way(좌,우)분리난방시스템
모든제품 2년 무상 A/S ▶ 전제품 無 전파와 열선시스템
▶ 입금계좌번호 농협 317-0000-9628-51(예금주:(주)장수구들)